

1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마터-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2 윤동주의 서시

이상의 집-윤동주 하숙집-청전 이상범 가옥-윤동주문학관

3 김수영의 뿌리

문익환 통일집-윤극영 가옥-4.19민주묘역 시비-김수영문학관

4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최순우옛집-수연산방-심우장-박태원집터-길상사

5 박태원의 천변풍경

무교동 관광공사(박태원 생가터)-삼일빌딩 베를린광장-우미관터-수표교-광장시장

6 신동엽의 종로5가

종묘-종로5가 서시오판-창신동 백남준을 기억하는집

7 박인환의 세월이가면

교보앞 표석-낙원동 책방 마리서사-원서동 집터-고희동가옥

8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광흥창 터-공민왕 사당-와우정(와우아파트 터)-당인리발전소-경의선책길-김대중기념도서관

9 박완서의 나목

신세계백화점-한전사육-스카라극장(옛 수도극장)-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계동

10 이범선의 오발탄

경리단길-보성여고-해방촌성당-해방예배당-해방촌오거리-신흥시장-108계단-용산고

11 손창섭의 길

필동 한옥마을-남산 문학의집-안중근기념관-회현동

12 임화 네거리의 순이

한무숙문학관-대학로-낙산-효제초등학교

13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창의문-현진건 집터(옛 무계동)-이광수 홍지동산장-평창동 박종화 가옥-영인문학관

14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

세운상가 옥상-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개벽사 터-천도교 중앙대교당-운현궁

15 정비석의 자유부인

적선동-세종로-종각(옛 화신백화점)-을지로입구(옛 아서원)-덕수궁 영성문

16 손장순의 한국인

회현동-남대문시장-대한상공회의소-북창동-공평도시유적전시관

제1회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코스 순서

- ①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6번 출구
- ② 서울시립남서울 미술관
- ③ 남현동 백제가마터
- ④ 호간공 이정영묘역
- ⑤ 서정주 시인의 집(봉산산방)



▶ 일 정 표

회차	수요일 (10시)	토요일 (14시)	주 제	코 스	해 설
1	6/12		서정주의 국화원에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마터-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문학평론가 이경철
2		6/19	윤동주의 서시	이상의 집-윤동주 하숙집-청천 이상범 가옥-윤동주문학관	서울대 방민호교수
3		6/29	김수영의 뿌리	문익환 통일외집-윤극영 가옥-4.19민주묘역 시비-김수영문학관	문학평론가 진은경
4	7/3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최순우옛집-수연산방-심우장-박태원집터-길상사	시인 박미산
5		8/31 (오후7시 ~10시)	박태원의 천변풍경	무교동 관광공사(박태원 생가터)-삼일빌딩 베를린광장-우미관터-수표교-광장시장	황미선/신수경 (서도연 연구원)
6	9/4		신동엽의 종로5가	종묘-종로5가 서시오판-창신동 백남준을 기억하는집	시인 박미산
7		9/14	박인환의 세월이가면	교보앞 표석-낙원동 책방 마리서사-원서동 집터-고희동가옥	안양대 맹문재교수
8	9/25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광흥창 터-공민왕 사당-와우정(와우아파트 터)-당인리발전소-경의선책갈-김대중기념도서관	권해상 (서도연 연구원)
9		10/5	박완서의 나목	신세계백화점-한전사옥-스카라극장(옛 수도 국장)-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계동	박정아 (서도연 연구원)
10		10/12	이범선의 오발탄	경리단길-보성여고-해방촌성당-해방예배당-해방촌오거리-신흥시장-108계단-용산고	김미선 (서도연 연구원)
11	10/23		손창섭의 길	필동 한옥마을-남산 문학의집-안중근기념관-회현동	한이수 (서도연 연구원)
12	10/30		임화 네거리의 순이	한무숙문학관-대학로-낙산-효제초등학교	전혜경 (서도연 연구원)
13	11/6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창의문-현진건 집터(옛 무계동)-이광수 홍지 동산장-평창동 박종화 가옥-영인문학관	이지현 (서도연 연구원)
14		11/16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	세운상가 옥상-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개벽사 터-천도교 중앙대교당-윤현궁	최서향 (서도연 연구원)
15	11/20		정비석의 자유부인	적선동-세종로-종각(옛 화신백화점)-을지로 입구(옛 아서원)-덕수궁 영성문	강영진 (서도연 연구원)
16		11/30	손장순의 한국인	회현동-남대문시장-대한상공회의소-북창동-공평도시유적전시관	심홍식 (서도연 연구원)

▶ 작가 소개 및 연보



서정주 자서(自書) 연보와 삶

1915년 5월 18일 전북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578(질마재)에서 서광한의 장남으로 출생.

22~24; 서당에서 한학을 배움.

24; 부안군 부안면 줄포로 이사

24; 줄포 공립 보통학교 입학

26; 3학년에 일본인 여선생 요시무라와 만나다.

29; 중앙고등보통학교 입학. 겨울(11월) 광주학생 사건 관련 종로 경찰서 수감.

1930 봄; 염병으로 ‘피터팬’처럼 환상의 천국여행을 하다. 집에서 300원을 몰래 들고 만주로 가다, 서울 원남동 6번지 배미사의 집에 머물다.

30년; 백양사 운문암에 두달간 머물다. 집에 와서 30원을 들고 원남동에 오다.

31; 고창 고등보통학교에 편입. 가을에 자퇴하다.

- 32; 니체, 보들레르, 톨스토이 등을 읽다.
- 33; 개운사 대원암에서 머리를 깎다.(동대문 밖) 박한영 스님의 제자가 되다. 김동리와 매일 만나다.
- 34, 6월; 대원암을 떠나 금강산 마하연의 송만공 선사를 찾아갔다 고향으로 내려오다.
- 35; 중앙 불교 전문학교 입학.
- 36.1; 동아일보 신춘문에 시에 당선되다. 임유라와 만나 가회동 7번지 주변을 배회하다. 휴학.
- 36 여름; 해인사에서 묵으며 김동리 대신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치다.
- 36.11; 『시인부락』을 경복궁 영추문 앞 보안여관에서 창간하다.
- 37.봄; 제주도로 유랑을 떠나다.
- 38.3; 방옥숙과 결혼하다.
- 39.봄; 고창 장인의 대서소에서 일하다.
- 1940; 조선일보 폐간 기념시 행진곡 발표
- 가을; 만주 양곡주식회사 용정 출장소에서 일하다.
- 41봄; 동대문 여학교에서 근무. 가을; 동광학교에서 근무.
- 41.11 제1시집 『화사집』 간행 (남만서고)
- 42; 홍은동 궁골로 이사. 『옥루몽』등 중국 고전번역으로 생계 유지.
- 43.가을; 『국민시인』에서 편집일을 보다. '종천순일파(從天順日派)'라 회고하다.
43. 매일신보 보도반원으로 일하다. 친일시와 글을 발표하다.
- 44.봄; 민족의식 고취죄로 고창경찰서에 수감.
- 45; 징용을 피하여 정읍 군청에 고원으로 취직하다.
- 45.8 ; 해방과 함께 마포구 공덕동 301번지로 이사하다.
- 45.10; 『춘추(春秋)』 편집부장으로 일하다.
46. 가을; 남조선대학(지금의 동아대)에 최재서의 도움으로 가다.
46. 제2시집 『귀족도』 간행(선문사)
47. 여름; 이승만 전기 집필
- 48.동아일보 사회부장, 문화부장을 역임하다. 여름; 문교부 초대 예술과장이 되다.
- 49 여름; 첫 환청증상으로 '기구(機具) 기계의 소리'를 듣다.
- 가을; 한국문학가협회 시부회장을 맡다.
- 1950.6.28; 한강 도강 피난. 수원에 도착하자 "기구의 노력에 붙잡혀/강제로 공중에 공개 당하게" 된다. 이승만 전기 사건으로 정부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 50.7; 문충구국대에 가담(조지훈, 구상, 김윤성 등). 남하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 환청과 헛소리.
- 50.8; 후송되어 부산으로 미리 가다. 10월 - 51.1.4; 부역문인 심판원이 되다.
- 51.1.4; 전주로 피난하다. 전주 전시연합대학 강사 겸 전주고등학교 강사가 되다. 2월에
‘빨치산’ 누명을 쓰다.
- 52.봄; 김현승 시인 주선으로 조선대 부교수가 되다.
- 53.9; 서라벌 예술대학 교수가 되다.
- 54.예술원회원 피선(문학과 위원장)
55. 제3시집 『서정주시선』 간행(정음사)
1960. 동국대 교수
- 61.5.19; 중부 경찰서 유치장 수감. 무혐의로 풀려남. 말에 네 번째 시집 『신라초』를 정음사
에서 펴냄.
68. 제5시집 『동천』 간행(민중서관)
- 1970; 남현동(사당동)으로 이사.
74. 선운사 입구에 미당시비 건립
75. 제6시집 『질마재 신화』 간행(일지사)
76. 제7시집 『떠돌이의 시』 간행(민음사)
1980. 제8시집 『서으로 가는 달처럼』 (기행시집) 간행(문학사상사)
- 전두환 신군부 찬양
- 83.5 제10시집 『안 잊히는 일들』 간행(현대문학사)
- 84.3. 제11시집 『노래』 간행(정음문화사)
84. 범세계 한국예술인회의 이사장 취임. 2차 세계여행을 방여사와 함께 함.
88. 제12시집 『팔할이 바람』 간행(혜원출판사)
89. 영역시집 『서정주시선』 간행(콜럼비아대 출판부)
- 1991.1. 제13시집 『산시』 간행(민음사)
- 91.4. 『서정주 세계민화집』5권 간행(민음사)
93. 제 14시집 『늙은 떠돌이의 시』 간행(민음사)
94. 시베리아 여행. 방옥숙 여사와 함께 바이칼호와 캄차카반도를 다녀옴.
- 97.11. 제 15시집 『80 소년 떠돌이의 시』 간행 (시와시학사)
- 2000, 12, 24일 타계, 김대중 정부로부터 금관문화훈장 추서.

▶ 작품 소개

서정주의 주요 시편과 시세계 개관

미당 서정주(1915~2000)는 한 시대만 살다간 사람이 아니다. 지사나 투사, 정치인이 아니다. 우리민족의 정한(情恨)을 모국어의 혼과 가락으로 풀어내 반만년을 살아온, 앞으로 민족의 가슴속에 살아갈 시인이다.

『화사집』에서 『늙은 떠돌이의 시』에 이르는 서정주 15권의 시집은 반만년 우리 역사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의 수확이다. 서정주 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혼과 모국어의 깊이와 넓이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시인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해방 이후 우리 현대시사의 지형도는 서정주를 중심으로 그 한쪽에는 김수영을 아버지로 삼은 참여와 진보, 그리고 지성의 시단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김춘수를 아버지로 삼은, 그러나 제 아버도 부정해버리는 실험과 해체의 전위시단이 놓여 있다. 동서고금 시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시의 강심수江心水로서의 정통 서정의 서정주 시는 친일(親日)과 어용과 순수로 매장당한 채 김수영과 김춘수 쪽만이 평가되오며 오늘날 문학의 난맥상과 나아가 인간성 상실을 부추기고 있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향박하의 뒤편길이다./아름다운 베암……/을마나 크다란 슬픔으로 태어났기에 저리도 징그러운 몸동아리냐.//꽃다님 같다.//너의 할아버지가 이브를 꼬여내던 달변의 헛바닥이/소리 잃은 채 널롱그리는 붉은 아가리로 푸른 하늘이다—물어뜯어라. 원통히 물어뜯어.//달아나거라 저놈의 대가리!!//돌팔매를 쏘면서 쏘면서 사향방초 길 저놈의 뒤편 따르는 것은/우리 할아버지의 아내가 이브라서 그러는게 아니라/석유 먹은듯……석유 먹은듯…… 가쁜 숨결이야.//바늘에 꼬여 두를까보다—꽃다님보단도 아름다운 빛.//크레오파투라의 피 먹은양 붉게 타오르는/고흔 입설이다—습여라 베암!/우리 순네는 스물난 색시 고양이같은 고흔 입설—습여라 베암!”

— 1936년 해인사에서 착상한 「화사」 전문

“애비는 종이였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중략)//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긴 팔 할이 바람이다./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드라/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나는 아무 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잔란히
터어 오는 어느 아침에도/이마 위에 얹힌 시詩의 이슬에는/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별이거나 그늘이거나 햇바닥 늘어뜨린/병든 수캐마냥 혈떡거리며 나는 왔다.”

- 1937년 제주도 유랑에서 착상한 「자화상」 부분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봄부터 소쩍새는/그렇게 울었나 보다.///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천둥은 먹구름 속에서/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머언 먼 젊음의 뒀안길에서/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 제3시집에 실린 「국화 옆에서」 전문

소쩍새와 천둥과 먹구름과 무서리등 삼라만상의 협동과 소통으로 한 송이 국화꽃은
피어난다. 무엇보다 그런 꽃을 피우기 위해 시인은 잠도 자지 않고 온몸으로 예민하게
동참하고 있다.

“하늘에서 울려 들려오는 내 의식과 탄 사람의 의식과의 교환에의 몰입”이라 스스로
밝힌 환청 노이로제 증상이 시로 아름답게 승화되고 있는 것이다. 6.25와중의 개인적인
처참한 증상이 ‘머언 먼 젊음의 뒀안길에서/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로 승화돼 우리국민, 나아가 인류 보편적인 정서와 아름답게 소통하고 있다.

『서정주시선』을 펴내며 서정주는 시세계와 삶의 절정을 향하며 외국 시와 이론, 참여시



와 실험시 등 시의 시대적 경향과 유파에 맞서 한국 전통서정시세계의 본류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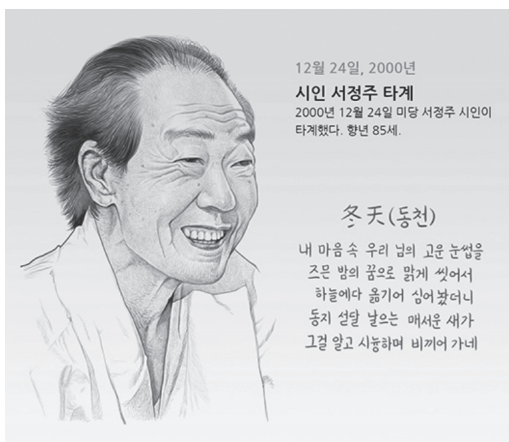
“내 마음 속 우리 님의 고운 눈썹을/즈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하늘에다 옮기어
심어 났더니/동지 설달 날오는 매서운 새가/그걸 알고 시뽕하며 비끼어 가네.”

- 동천 전문

다섯 행의 짧은 시인데도 온 우주를 울리고 있다. 시어 하나하나의 정밀한 선택과 절차
탁마, 그리고 행마다 자연스러운 4음보 율격의 변주(變奏)를 보시라.

그런 정밀한 표현으로 서정주를 평생 사로잡았던 빠꾸기 소리가 우리 님 손톱 속 분홍
반달로, 다시 고운 눈썹으로 육화되다 마침내 저 하늘의 초승달로 떠오른 것이다. 천 날
밤의 꿈으로 맑고 정밀하게 씻어 띄운 그 달에 새와 별과 독자 등 온 우주 못 생령이
감응하고 있는 시이다.

시학도들이 시를 배우고 시인들도 자신의 시를 경계하고 가다듬을 때 가장 많이 참고하
는 시이다. ‘서정주를 통하지 않고는 시에 이를 수 없다’는 우리 시단의 통설을 낳게 한
시가 바로 이 「동천」이다.



“병장 첫 봉급을 받고 춘천 시내로 나가 책 한 권을 샀는데, 그 책이 바로 서정주 시집 『동천』이었다. 나는 『동천』을 읽고 또 읽으면서 서정주 시인을 결정적으로 새롭게 만나게 되었다. 우리 시에 있어서 전통적 정서와 가락을 내 나름대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군인교회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군대의 밤을 보내면서 『동천』에 배어 있는 민중적 한의 가락과 숨결을 발견한 것이다.”
(정호승,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서정주시집’」)

“신부는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겨우 귀밑머리만 풀린 채 신랑하고 첫날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중략)/그리고 나서 45년인가 50년이 지나간 뒤에 뜻밖에 판 불일이 생겨 이 신부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신부방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신부는 귀밑머리만 풀린 첫날밤 모양 그대로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습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재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버렸습니다. 초록 재와 다홍 재로 내려앉아버렸습니다.”
- 「신부」 부분

서정주는 1975년 회갑을 맞아 위 시를 맨 앞에 올린 여섯 번째 시집 『질마재 신화』를 일지사에서 펴냈다. ‘질마재 신화’와 ‘노래’ 두 부로 나뉘 총 45편의 시를 실었다. 1부 ‘질마재 신화’ 시편들은 모두 산문시로, 서정주가 태어난 질마재에 전해오는 설화나 전설과 유년 체험, 그리고 사머니즘 속에서 원초적 삶을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을 그리고 있다. 2부 ‘노래’에는 노래로 부를 수 있게 글자 수를 맞추어 일종의 정형시로 손본 시편들을 실었다.

오해로 첫날밤 달아나버린 신랑이 죽을 때 이르러서야 찾아와 신부의 순정을 확인하는 위 시 「신부」는 우리 전래설화 「손각시」를 빌려다 쓴 작품. 이 시를 읽노라면 내겐 저 북구北歐 노르웨이의 서정적인 작곡가 그리그의 「솔베이지의 노래」가 들려오는 듯하다. 저 바다 건너 돈 벌러 떠난 신랑 페르퀀트를 죽도록 기다리다 다 늙어 돌아와 자신의 무릎 위에서 죽어가는 남편을 안고 부르는 솔베이지의 선율이 「신부」와 오버랩 되어 온다.

이처럼 『질마재 신화』는 유년의 삶과 기억을 바탕으로 인간으로서는 끝내 되찾고 돌아가야 할 고향, 그 원초적 삶을 그리고 있다. 오늘도 우리 인류의 뇌리와 핏속에 새겨져 면면히 유전돼오고 있는 우주 삼라만상과 한 몸이 돼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신화적 세계를 오늘에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다.

“밤새어 긴 글 쓰다 지친 아침은/찬 술로 목을 축여 겨우 이어 가나니/한 수읍에 5만원 짜리 회갑시 써 달라던/그 부잣집 마누라 새삼스레 그리워라./그런 마누라 한 열대여섯 명 줄지어 왔으면 싫어라.”
- 「찬술」 전문

그때 그때 시인의 심경을 정말로 참 자연스레 털어놓고 있는 시이다. 1부에 ‘정말’이란 부부 제목을 달고 「정말」이란 제목의 시도 실렸듯 서정주는 시집 제목마저 처음에는 ‘정말로 달으려 했다고 회고했다.

일상의 삶에선 마지못해 악의 없는 거짓말도 더러 해왔지만, 시에서만큼은 그럴 수가 없어서 ‘정말로 붙이려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던가. 소설에서는 거짓말을 잘해야 큰 소설가가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심경 표출이 시라는 장르 본연일진대 어찌 자신마저 속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시집 제목으로서 ‘정말’은 아이러니하게도 험하게 보일 수 있고, 자신의 살아온 인생 역정이 ‘떠돌이’로 보여 제목을 그리 달았다 했다. 그 제목 때문인지 서정주는 이듬해 세계여행길에 올라 오대양육대주를 떠돌게 된다.

“한강을 넓고 깊고 또 맑게 만드신 이여/이 나라 역사의 흐름도 그렇게만 하신이여/이 겨레의 영원한 찬양을 두고두고 받으소서/새맑은 나라의 새로운 햇빛처럼/넉은 온갖 불의와 혼란의 어둠을 씻고/참된 자유와 평화의 변영을 마련하셨나니”

1986년, 71세의 서정주가 국민들을 죽이고 억압하며 제 혼자 대통령이 돼 독재 권력을 시퍼렇게 휘두르고 있던 56세의 전두환에게 바친 시 「처음으로- 전두환 대통령 각하 56회 탄신일에 드리는 송사」 앞 부분이다. 서정주 자신도 다시 보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보이지 싫어했겠지만, 지금도 인터넷에 전문이 떠돌며 시인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는 시다.

“당명왕과/양귀비와/모란꽃이/어느날/함께/열반 극락에 들어가 보자고/하늘로 하늘로 솟아올라 갔는데,// 당명왕과 양귀비는/구름 엉킨 언저리에서/동침하고 싶어/다시 땅으로 내려와/방으로 들어가버리고//모란꽃은 시들어 떨어져서/그 꽃빛만이 더 높이 날아올라 서/해와 달과 별들 옆을 감돌고 있었는데//그 마음씨만은 아주나 자유라놓아서/그 빗길까지 다 벗어 던져버리고/색계와 무색계 넘어/열반에 들어 자취도 없이 앉으셨나.”

15번째 신작 시집이자 생전 마지막 시집인 『80소년 떠돌이의 시』 맨 위에 올린 「당명왕과 양귀비와 모란꽃이」 전문이다. 아무런 설명 없이도 영원 자체인 위 시를 시인의 마음 그대로 읽고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한국인과 모국어의 맛과 멋의 정체성 아니겠는가.

“더 없이 아름다운/꽃이 질 때는/두견새들의 울음소리가/바다같이/바다같이/깊어만 가
느니라.”

말년에 떨리는 필체로 크게, 한 번의 고침 없이, 페이지 한가운데에 보란 듯이 써놓은 시다. 그 옆 페이지에는 ‘아름다운 것은 슬픈 것이니라’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짓고 있었다. 친일과 전두환 찬양으로 세상으로부터 호되게 버림받은 말년의 시인과 시의 심사를 행여 ‘더없이 아름다운 꽃이 질 때’와 ‘바다같이 깊은 두견새들의 울음소리’에 빗대 항변하고 자만하는 시로 비치면 남사스러운니 발표 안했을지도 모를 시다.

서정주 시인은 아래 글과 같은 그 ‘미완감(未完感)’으로 이 시를 고치고 또 고치려다 그만 이승을 떠났을 것이다. 그러니 변산반도 바다가 보이는 고향 질마재 언덕에 묻혀 이 두견새들 울음소리의 한량없는 깊이를 재고 또 재보며 온전하게 다 형상화해 내고 있을 것이다.

“아무리 쓰고 고치고 저미고 붙여 봐도, 한동안 지나서 다시 읽어 보면 어느 때나 미비(未備)한 것만 같은 것이 시 아니던가. 적으나마 내 경우는 언제나 그렇다. 그렇다고 이걸 요량했다 해서 ‘어차피 미완이니, 결점이 좀 많으면 어때?’하고 덤비는 시작태도여서는 물론 안 된다. 최선을 다하여도 생기느니 미완감 뿐인데, 하물며 게으르기라도 하면 그 미비가 여북할까”라며,

작가와 봉산산방

“오랜 가난에 시달려 온 늙은 아내가/겨울 청명한 날/유리창에 어리는 관악산을 보다가 /소리내어 웃으며/‘허어 오늘은 관악산이 다아 웃는군’한다/그래 나는/‘시인은 당신이 나 보다 더 시인이군!/나는 그저 그런 당신의 대서代書쟁이구……’하며/덤달아 웃는다.”

— 「겨울 어느 날의 늙은 아내와 나」 전문

1970년 3월 10일 관악산이 눈앞에 바로 잘 바라보이는 사당1동으로 이사해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아내와 해로偕老했다. 일제 말 한때 최재서의 인문사에 재직하며 친분을 나눴

던 일본 시인 노리다케 미즈오가 해방 후 귀국하며 물려준 공덕동 꼬불꼬불한 골목길 언덕배기에 한옥 대문에 돌흙담 낀 기와집 반 채에서 25년간 살다 바로 옆에 조그만 철공소가 들어서서 밤낮없이 쇠를 두들기기에 그 소리를 견디다 못해 이사한 것이다.

마침 정부에서 가난한 예술인들을 위해 찾길도 없는 사당동 관악산 자락에 예술인마을을 조성해 땅을 분양하기 시작했다. 교통이야 어떻고, 장화 없인 다닐 수 없는 진창길이야 어떻든, 서정주는 그 관악산과 자연이 좋아, 그리고 남자로 태어나 새 집 한 채 직접 지어보려는 로망에서 사당동을 택한 것이다. “1969년의 가을부터 겨울이 가기까지, 발톱이 어는 것도 갇그리 모르고 나와 아내 둘이서 번갈아 건축현장을 지키며, 부디 좀 단단히만 지어달라고 ‘박 사장, 돼지갈비나 좀 구워 자시고 할까? 김 사장, 쇠맥에 쇠머리 수육이라도 좀 자시고 하실까?’ 노가대판 비위만 맞추고 서 있었나니……”

당시 「또 한 개의 전화위복」 대목에서처럼 부부가 번갈아 관악산 칼바람 속에서도 집 짓는 현장을 지키며 독려했다. 난생처음 수첩에 건축자재비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런 노력 끝에 2층 양옥으로 집이 다 지어지자 당호를 ‘봉산산방蓬蓀山房’이라 지었다. 단군신화에서 따와 쑥같이 쓰고 마늘같이 매운 일들을 더 잘 견뎌내야겠다는, 5·16 이후 매사에 주의하자는 ‘주의보’ 좌우명 내지 각오를 당호에 새겨 넣은 것이다.



“새 집으로 이사한 뒤 일년 반 동안 내가 주로 중요하게 마음먹어 해온 일 두 가지가 있으니, 그 한 가지는 관악산 삐죽새 소리를 귀담아 들어 온 일이고, 다른 한 가지는 좁은 대로의 이 신거新居의 뜰에다 있는 대로의 재력과 공력을 다해 나무들과 돌들을 배치하고 대조해 보고 옮겨 고쳐 놓아보고하며 지내온 일이다.”

이사 온 지 1년 6개월 후 쓴 「내 시정신의 근황」이란 글에서 서정주는 삐죽새 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과 뜰 가꾸기를 ‘시정신의 근황’으로 내세우고 있다. 삐죽새나 소쩍새 소리는 『화사집』부터 서정주 시세계를 줄곧 관통하고 있는 전형적 모티프여서 그렇다. 치고 뜰을 가꾸면서 세상의 조화, 시의 조화를 새롭게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관악산 밑의 내 집 봉산산방에서 내가/새로 시작한 일은/호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여러 가지 꽃나무들과 여러 모양의 바윗돌들을 모아/이것들의 모양과 빛깔을 늘 대조해보며 /조금치라도 더 나은 조화를 이루게/배치해 보고 또 고쳐 배치해 보고 하는 일이었네.”

당시 「관악산 봉산산방」 위 대목처럼 서정주는 이 집에 사는 내내 집 뜰 가꾸기와 돌보기에 지극정성을 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 시인이 경주 선덕여왕릉에서 주운 것이라며 이끼 낀 분홍빛 돌 하나를 가져다주었다. 여왕을 짝사랑하다 불타 죽은 신라의 미친 사내 지귀의 님을 생각하며, 또 그런 사내에게 팔찌를 벗어준 여왕을 생각하며 여왕의 몸 어디에 돋았을 털로 그 이끼를 여기며 조석으로 물을 주며 시상에 잠기곤 했다. 시 구상의 공간이 이제 조화로움을 가꾸려는 집 뜰로 바뀐 것이다.

작가와 예술

좋은 풍경이나 그림을 바라보며 영혼이 촉촉이 적셔질 때 우리는 “아! 참 시적이야!”라고 말하곤 한다. 좋은 시나 문장의 한 구절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시공을 건너 뛰어 언제 어디서나 본 듯한 영혼의 그림, 이미지가 그려지곤 합니다. 미술과 문학은 태생적으로 때어 놓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

문학, 미술, 음악, 공연, 영화 등 모든 예술 장르가 예술의 혼이랄 수 있는 영감을 서로서

로 교류하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술과 문학은 남이면서도 하나인, 하나이면서도 남인 연리지(連理枝), 혹은 부부와 같은 육친의 정으로 맺어져 왔다.

문학은 영감을 글이라는 문자, 뜻으로 전하지만 미술은 점과 선과 색이라는 그림, 이미지로 전합니다. 글은 그림이 아니고 추상적인 뜻이어서 생생하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림은 글이 아니어서 뜻을 소상하게 전할 수다. 태생적으로 상형문자, 즉 그림글 한 몸에서 출발한 문학과 미술은 서로 뜻과 이미지로 전문화돼 갈리면서부터 서로 서로 잃어버린 반쪽을 애타게 그리워해오고 있다.

그 반쪽을 보충하기 위해 미술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아이콘이란 상징의 글로 소통되는 뜻이 되기도 하고 문학은 정경을 세밀히 묘사하며 스스로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시인 호라티우스가 “그림은 말없는 시, 시는 노래하는 그림”이라고 했듯 시와 그림은 서로 다르면서도 서로 한 몸이 되길 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동양에서는 그림과 문학이 한 몸으로 어우러진 문인화라는 장르가 있다. 엄동설한을 의연하게 견뎌내는 한 그루 소나무의 수직선과 허스름한 집 한 채 지붕의 수평선으로 우리네 삶과 정신의 깊이와 넓이를 드러낸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는 우리 문인화의 걸작이다. 이렇듯 미술과 문학은 한 몸이 되기도 하고 따로 떨어져서도 상호 보완적인 부부애적, 동지애적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서정주시인도 회갑을 맞아 당대 최고의 화가들과 시화전을 열었다.

“내 환갑기념 시화전을 열고 있던/제주도에 함박눈 내리던 성탄절의 밤/내 옆에서 내 마고자를 눈물로 얼룩지우던/그 열아홉 살짜리 계집아인 잊을 수 없네./진주의 무슨 여고를 졸업하고 왔다던가/우리가 간 왕대꽃집에 취직해 있다가/우리 술상 가에서 내 ‘국화 옆에서’를 읊조리고는/내가 그 작자란 걸 알고 내 옆에 와서 울던/그 계집아이 모양을 아조 잊을 순 없네.”

서정주는 회갑을 맞아 1975년 5월 19일 서울 신문회관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를 돌아 마지막으로 제주도까지 가는 회갑기념 전국순회 시화전을 여는 호사도 누렸다. 이 시화전에는 서정주가 직접 시제(詩題)를 쓰고 김은호, 남관, 김기창, 천경자, 송수남 등 당대 내로라하는 27명의 화가가 그림을 그려 넣은 1백30여 점의 시화가 전시됐다. 나도 서정주가 그때의 감명으로 쓴 「시론」이란 시 시화 한 점을 갖고 있다.

“바다 속에서 전복 따 파는 제주해녀도/제일 좋은 건 님 오시는 날 따다주려고/물 속 바위에 붙은 그대로 남겨둔단다./시의 전복도 제일 좋은 건 거기 두어라./다 캐어내고 허전 하여서 해매이리요?/바다에 두고 바다 아래여 시인인 것을…….”

— 「시론(詩論)」 전문

“가신 이들의 혈떡이든 숨결로/곱게 곱게 씻기운 꽃이 피었다.//흐트러진 머리털 그냥 그대로./그 몸짓 그 음성 그냥 그대로./옛 사람의 노래는 여기 있어라.//오— 그 기름 묻은 머릿박 날날이 더워/땀 흘리고 간 옛 사람들의/노랫소리는 하늘 위에 있어라.//쉬어 가자 벗이여 쉬어 가자/여기 새로 핀 크낙한 꽃 그늘에/벗이여 우리도 쉬어서 가자./만나는 샘물마다 목을 축이며/이끼 낀 바윗돌에 턱을 고이고/자칫하면 다시 못 볼 하늘을 보자.”

서정주 시인이 조선백자를 꽃으로 형상화한 이 시는 해방 후 최초로 발표한 시로 1945년 『민심』 11월호에 실렸지만 1943년 초가을에 탈고됐다. 병든 수캐마냥 혈떡거리며 달리 기만 했던, 관능적이고 원색적인 핏빛 세계에 악마적으로 빠져들었던 게 1941년 펴낸 첫 시집 『화사집』이다. 그러다 이 「꽃」에 이르러 쉬어가자며 핏기가 곱게 곱게 가신 백자, 그 무채색의 제2 시집 『귀족도』 세계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미당은 1942년 지독한 학질로 죽을 뻔하다 다시 살아났다. “이 무렵부터 내게는 한 개의 형이상학적 성찰이 비롯됐다고 생각 된다.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간헐적이거나 그러한 감동 말이다. 사망한 사람 전체의 호흡이 정기(精氣)가 되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 같은 의식이 적으나마 내게 생긴 것은 이때부터다”고 「나의 시인 생활 약전」에서 밝히고 있다.

“이 「꽃」이라는 작품은 내 시작생활에 한 전기를 가져온 작품이다. 시집 『화사집』 속의 백열(白熱)한 그리스 신화적 육체나 부영이 같은 암흑이나 절망이나 그런 것들에서도 인젠 떠나서 죽은 저 너머 선인(先人)들의 무형화 된 녀의 세계에 접촉하는 한 문(門)을 이 작품의 원상(原想)은 잡아 흔들고 있는 것이다”며 미당도 「꽃」을 이리 획기적인 시로 자평했으니.

시작생활 뿐 아니라 현실생활에서도 「꽃」은 한 전기를 이룬 작품이다. 딱하고 혹독했던 일제 시대 막다른 골목에서 체념의 인생관을 체득한 것이다. 그냥 그대로 살다, 그냥 그대로 죽어도 된다는 체념관은 막다른 시대를 살아내는 삶의 의지, 용기 같은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탈출구나 비상구마저 꽉 막힌 일제 말 미당은 골동취미에 빠져들었다. 완상을 넘어 숯제 골동품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 시대 선인들과 영통(靈通)하며 교합(交合)하려

고까지 했다. 세숫대야만한 백자에 물을 받아 세수도 해보고, 아들과 함께 꽃을 꺾어다 백자 항아리에 꽂기도 해보고, 춘향이의 이도령이 입었을법한 껌자를 입어보기도 하며 골동품과, 또 그것들을 사용했던 선인들과 통하려했다.

이런 골동 취미나 완상을 넘어서 실제로 그것들과 심정적으로 교합하려는 자세는 미당 말년까지 이어졌다. 필자가 말년에 이 남현동 자택을 찾았을 때 지팡이같이 생긴 칼집에서 칼을 쓱 뽑아 휘두르며 “이 지팡이 칼이 어땠남? 황진이 애인이 줘고 다녔던 칼로 안 보이남?”하고 농담을 걸어왔다. 꼭 그런 것 같아 황진이 애인이 한번 되어보려고 인사동에서 사왔다는 것이다. 이런 골동품과 함께한 삶이 조선백자항아리를 ‘크낙한 꽃그늘’로 보게 하며 위 시를 낳은 것이다.

해설자와의 인연

“우리는 첫째로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내야겠다./백두산이나 한라산보다도/이왕이면 에베레스트 산만큼 센,/그래서 이 세계에 실력을 발휘하는/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야겠다./해와 달이 밤낮으로 그 빛을 다하듯이/언제나 목숨의 빛을 제대로 나타내는/그런 여무진 사람들이 되게 해야겠다./하로를 천년같이 넉넉히 살며/천년을 하로처럼 꾸준히 사는/그런 끈기를 길러내야겠다.”

미당의 마지막 시 「2000년 첫 날을 위한 시」 앞 부분이다. 21세기를 여는 첫날 아침 중앙일보에 실린 이 시를 읽기 위해 건강이 심상치 않아 계속 두문불출하던 미당을 1999년 봄부터 계속 댁으로 찾아가기 시작했다. 찾아가면 부인께서 “해 다 저문 저녁에 왜 왔는가, 내일 낮에 와요”라며 문을 안 따줬다. 그레 다음날 낮에 찾아가면 “선생님 주무시고 계세요”라며 또 문을 안 열어줬다.

그렇게 10여 차례, 계절은 찬바람 불어 가을로 넘어갈 무렵 ‘그때서야 초록 재와 다홍 재로 매운재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버렸습니다’는 미당 시 한 구절이 문득 떠오르며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왜 도망간 신랑을 녹의홍상 차림 그대로 첫날밤 맞을 모양으로 기다리다 반백년 지나 돌아온 신랑이 어깨를 어루만지니 폭삭 내려앉았다는 「신부」라는 그 시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해로(僬老)해온 신랑의 주검을 혹시 노부인께서 망령 들어 혼자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정말 가당찮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 누구보다 미당 덕 사정에 흰한 문정희 선배께 자총지총 얘기하고 도움을 청했다. 언제 어느 때 파출부가 들를 테니 문박서 기다리다 출령 따라 들어가라고 하여 그렇게 해서 미당을 뵈 수 있었다. “어, 이 차장 오셨남. 그래 웬 일이신가.” 미당은 여느 때처럼 반겨 맞아주었다. 그렇게도 내게 문도 안 열어주고 돌려보낸 일 자체를 모르는 것처럼 부인도 동그렇고 넉넉한 얼굴 웃음을 보여줬다. 현관 밖에는 자장면인지 중국집 빈 그릇 두 개가 놓여 있었다.

“천년, 억겁의 영원을 자유자재로 사시는 선생님께 새 천년 시를 받아 독자들과 널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며 미리 마련해온 고료 봉투를 건넸다. 봉투에서 돈을 꺼내 든 미당은 부인에게 활짝 펼쳐 자랑하며 아이처럼 좋아라했다. 그렇게 어렵게 청탁해 받아낸 원고, 미당 전용원고지 ‘봉산산방용전(蓬蒜山房用箋)’에 쿡쿡 놀려 칸칸이 다 찰만큼 큼지막하게 쓴 글씨체는 그러나 획들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다음해, 그러니까 2000년 10월 10일 아내와 사별한 미당은 그만 곡기를 끊어버렸다. 아내를 고창 선산으로 내려 보내는 날 미당은 방에 누워 ‘이 불쌍한 사람 지금은 고속도로에 접어들었구먼, 이제 천안을 지나고 있네, 아니 이 사람 지금은 묻히고 있구먼, 그 옆에 내 자리도 흰히 보이는구먼’하며 간호하던 제자에게 입으로는 웃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해로하다 한 쪽 먼저 가면 남은 쪽도 곧 따라 간다던데, 결혼 60주년을 맞아 새 색시같이 입혀 첫날밤을 보내자 했던 아내를 사별했으니 오죽할까. 그렇다면.

그 불길한 예감에 곧바로 사진기자와 함께 댁으로 찾아갔다. 수염도 깎지 못한 형용을 찍어 그 좋은 시인의 이미지를 흐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사진기자는 돌려보내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미당의 마지막 말이니 독자 여러분과 되새기고파 몇 대목 육성으로 요약한다.

“시인이란 똑같은 소리 되풀이하지 말고 계속 새로운 세계를 찾아나서야 되는 것이야. 기웃 기웃 거리며 남의 것 좋다 흉내 내지 말고 무엇에도 흔들림 없는 ‘절대적 자아’를 가지고 끝없이 떠돌라는 것이지. 아직 덜 되어서 무엇인가 더 되려고 떠도는 것이 시이고 우리네 삶 아니겠는가.

시의 혼을 왜 흔히들 프랑스 말로 에스프리라고 하지 않는가. 난 이 에스프리가 문학의 정신이고 정수라고 보네. 너와 나, 물과 돌의 혼을 꿰고 흐르는 에스프리가 없는 문학은

철학이나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정신, 그러니까 영어로 스피리트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정신과 혼에 꿈이 담백 실린 게 에스프리 아니겠는가.

나라고 어디 이 정든 땅 떠나고 싶겠는가. 아내 떠나고 혼자되었으니 아들 머느리 손주 있는 미국으로 가 식구들하고 살려는 게지. 거기 노스캐롤라이나에는 꽃도 만발해 있고 뼈꾸기도 울고 낙원이야.”

미당은 기력이 회복되면 미국 아들집으로 가기로 하고 비행기 좌석까지 잡아놓았으나 날아갈 기력이 없어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 절대 안정을 취하다 끝내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 숨을 놓아버렸다. 미당 시 곳곳에서, 또 시 행간에서 새어나오는 뼈꾸기 소리, 그 어떤 것도 우리말로 표현해내고야 말지만 그 소리만은 10%도 채 보여주지 못했다 거듭 고백하던 미당이 그 뼈꾸기 소리를 완성하려 미국이 아니라 저 하늘로 날아간 것이다.

이 미당과의 마지막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며 계속 미당을 돌보았던 윤재웅, 전옥란씨한테 어떻게든 취재진의 접근을 막아 달라 신신당부했다. 반쪽으로 여윈 사진이나 흑여 뒤틀린 기사로 미당의 예의 좋은 이미지를 훼손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다. 그리고 병원을 옮겨 산소마스크를 쓰기 전에 성모병원 병실로 찾아갔다.

큰 머느님이 찻숟가락으로 떠 넣어주는 홍시로 입술만 축이고 잠깐씩 깨어나곤 하던 미당이 눈을 뜨며 꺼져가는 얼굴로 흰하게 웃으며 “이부장 왔는가?”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레 “아직 부장은 못됐고 차장인 걸 선생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고 반문했더니 미당은 “곧 될 텐데 조금 먼저 부르면 안 되남?”하며 웃었다. 그러고 나서 금방 정색하며 “그레 이만하면 나도 시인이랄 수 있겠는가”고 물었다. “그럼요. 단군 이래 이 땅, 아니 하늘 아래 최고의 시인이 선생님이신걸요”라 했더니 다시 얹은 미소를 띠며 잠들었다.

며칠 후 그러니까 2000년의 12월 24일 밤 11시 조금 넘겨 미당은 숨결을 놓아버렸다. 때마침 하늘에서는 흰 눈이 펄펄 쏟아져 내려 미당은 그 눈발을 타고 우화등선(羽化登仙), 5천년 조선 시인 최초의 시선(詩仙)이 됐다. 그리고 나는 연말 인사에서 정말 부장으로 승진했다.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덕담을 보내는 그 넉넉한 여유의 효험이었던가.

대입 면접시험을 보러갔을 때 시험관으로 앉아 있던 미당이 “아니, 일류고 출신이 이 이차 대학엔 왜 왔는가”라며 반색하며 물었다. 그레 나도 “선생님께 시 배우러 일부러 일차 떨어지고 왔지요”라고 반색하며 답했다. 고등학교 시낭독회 때 모신 미당이 내 시를 유별나게 좋게 말해줬던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그 단 한 마디씩의 대화로 면접을

통과하고 대학시절 배우고 사회에 나와 문학기자 생활을 줄곧 하며 배우고 모셨으니 미당과의 살아 인연도 어언 30년.

그러나 사후 20년 가까운 인연은 더 모질었고 더 끈질기다. 두문불출 문도 안 열어주고 심지어는 외국 것도 그의 시에 들어오면 반만년 조선 것이 되어 버리는 그 조선 하늘과 땅을 떠나버리려 했던 미당의 심경. 니편 내편 없이 산 사람은 물론 귀신의 원까지도 다 풀어주고 간 미당의 그때 그 심경이 여직 풀리지 않고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

그래 나는 10주기를 맞아서 미당평전을 쓰기 시작했다. 그의 삶과 시에서 이 글 위에서 말한 스피리트가 아니라 에스프리를 건져 널리 알리려 했다. 시의 한참 아랫것들인 지성이나 사회과학 나부랭이들로는 결코 풀거나 규정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위엄과 끝간데 없는 깊이를 위해. 처음부터 꼼꼼히 밑줄 그어가며 다시 읽고 있는 미당전집 속에서 미당의 그 빼꾸기 소리가 울리고 있다. 내 귀 내 혼을 울리고 시방팔방 온 우주 속으로 번지는 먼 머언 그 소리가.

참고자료

『미당 서정주 평전』, 이경철 지음, 은행나무출판사

▶ 해설자 소개

해설자 : 이경철



약력

1955년 출생. 동국대 국문과와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와 문화부장, 문화전문기자, 『문예중앙』, 랜덤하우스, 솔출판사 주간 등으로 일하며 다수의 현장비평적인 평론 발표. 동국대, 경기대 겸임교수 등 역임. 2010년 『시와시학』으로 시인 등단. 저서로는 『천상병, 박용래 시 연구』, 『21세기 시조 창작과 비평의 현장』, 『미당 서정주 평전』, 『현대시에 나타난 불교』와 시집 『그리움 베리에이션』, 공저 『대중문학과 대중문화』, 『천상병을 말하다』와 편저 한국 현대시 100년 기념 명시, 명화 100선 시화집 『꽃필 차례가 그대 앞에 있다』, 『시가 있는 아침』 등. 현대불교문학상, 질마재문학상, 인산시조비평상 등 수상.

▶ 2019 서울문학기행 사업개요

사업목적

한국의 대표도시 서울과 서울사람의 정체성을 1920~1960년대 출간된 문학작품 현장탐방을 통해 탐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학향유의 기회를 제공

추진방향

서울과 서울사람의 삶을 묘사한 작품 속 현장과 작가들의 체취를 작가, 문학평론가, 전문해설가의 설명을 통해 찾아보는 본격 문학탐방 프로그램을 추구

사업운영

- 사업기간 : '19. 6.12 ~ 11.30(총 16회 운영)
- 참가대상 : 서울시민 640여명 (회당 40명)
- 운영 : 총 16회 중 평일(수 10시) 8회, 주말(토 14시) 8회로 분리 실시해 직장인과 학생 참여 유도, 혹서기인 8월 1회는 야간(18시) 기행
- 주요내용
 - 지역별 서울문학유적지 탐방
 - 서울소재 문학관 및 집터 탐방
 - 문학인 묘소 및 시비 탐방
- 접수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선착순 접수
 - 문의 : 02-772-9069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사단법인 서울도시문화연구원
Seoul Urban Culture Institute association, inc.

설립목적

서울시의 문화예술 발전 정책에 부응하며, 서울 고유의 도시문화 창달과 바람직한 미래 서울문화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고, 풍요로운 문화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

설립취지를 달성하고자 평생교육,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헌을 통해 서울의 문화정체성 정립에 노력. 특히 서울 고향 만들기, 서울역사문화학교 운영, 서울도시문화 지도사 양성 같은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설립경위

2016년 4월29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받음.
현재 회원 113명.

실적

- 2016년 7월 25일~8월 31일까지 제1회 서울도시문화지도사 1,2,3급을 모집, 9월 19일 1급, 2급, 3급 등 각급 지도사 50명을 배출.
- 호헌당 선비체험 캠프(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016년 7월~8월 3회, 서울시내 초등학생 80여명 대상 운영)

- 이야기가 있는 한양도성 야행(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2016년 9월~10월 2회, 서울시민 60여명 대상 답사)
- 종로역사인물 열전(종로구청, 2016년 10월~12월, 10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행사)
- 서울골목탐험대 운영(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7년 5월~10월 진행 중 5개 조 25명 운영)
- 언론인 역사생태탐방(삼성언론재단, 2017년 5월, 현역 언론인 4개조 70명 운영)
- 2017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7년 5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25회 탐방)
- 2018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8년 5월~12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 ‘디지털 인문도시 프로젝트: 순성의 복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이 2018년부터 8월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 20개 인문학 강좌 주관)
- 2019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9년 4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진행 중)

